

지역혁신동반성장 브리프

발행일 2024년 9월

발행처 지역혁신동반성장센터

주 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CRC 401-2호

발행인 박상철

작성인 권정현

편집인 정혜경

| 요약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지방소멸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학령인구 감소 및 청년 유출은 지역교육 공동화와 지역 위기로 이어지고 있음. 저출생과 사회적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위기 해결 방안으로 지역교육 활성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 중요해졌으며, 정부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지역정주 체계를 조성하고자 함. 경산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지정되었으며, 이에 경산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

제1장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진 배경 및 의의를 서술하였음. 제2장에서는 교육발전특구의 개요와 주요 추진내용 및 시범사업 지정 현황을 정리하였음. 제3장에서는 경산시의 일반현황 및 교육환경 분석을 통해 경산시 교육환경의 강점과 약점, 기회 등을 분석함.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위한 사업과 발전방향 등을 제시함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경산형 교육발전특구를 위한 사업으로 경산형 통합돌봄 생태계 구축, 디지털 전환대응디지털 ICT 교육 등 스마트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교육 역량 강화, 특수교육 특화 플랫폼 구축, 지역 산업 인프라 연계한 창업·스타트업의 허브화, 지역협의회 활성화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제언함

[경산시 교육발전특구 발전 방안]

지역혁신동반성장센터 연구원
권정현

제1장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진 배경 및 의의

1. 추진배경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 경쟁력 약화 및 소멸 위기 직면
 - 지방은 저출생, 초고령화, 청년인구 수도권 집중 등으로 2021년 전체 시군구의 40%(89개)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역 경제성장 둔화, 정주 여건 악화, 지역공동체 붕괴 등으로 이어지는 축소사회 위기에 직면함
 - 우리나라의 지방소멸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학령인구 감소 및 청년 유출은 지역 교육 공동화와 지역 위기로 이어지고 있음

- 지역 공교육 발전 및 교육 불평등 해소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 저출생과 사회적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위기 해결방안으로 지역교육 활성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 중요해짐
 -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계-지자체-산업계 등 제반 분야가 협력하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문제 해결 위한 정책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및 추진
 -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청-지자체-대학-산업체 등 지역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공교육 혁신,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강화를 통해 인구감소 문제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지역의 모든 주체가 함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 경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발전방향 모색 필요
 -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2차 지정에서 경산시는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 인프라와 공교육 협력 통한 정주거점도시 조성 및 정주율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경산형 교육발전특구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제2장 교육발전특구 내용과 현황¹⁾

1. 교육발전특구 개요

-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임
-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하여 공교육만으로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
- 또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함
- 지정 지역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제한되며, 지정 단위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 유형으로 구분

유형	신청 단위	신청 주체
1유형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장-교육감
2유형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장-교육감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 특구 운영을 위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
- 교육발전특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검토하여 다양한 특례 및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2. 정책 방향 및 중점 추진 내용

1)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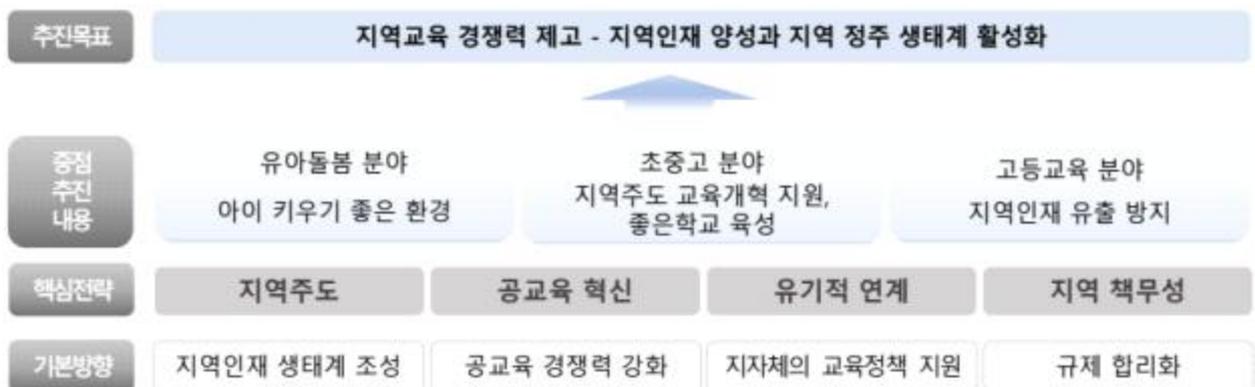
- 기본 정책 방향은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자체의 교육정책 지원 확대 및 규제 합리화(교육 관련 규제 완화 및 특례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함
- 핵심전략은 지역주도, 공교육 혁신, 참여자의 유기적 연계 및 지역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임
 - (지역주도) 지역 주체들이 주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구상·확산하는 체계 구축
 - (공교육 혁신)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교육 혁신 방안 도출 시행

1) 교육부. 2023.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 (유기적 연계) 유아-초중등-고등교육 전 과정에 걸쳐 지자체-교육청-지역산업 간 긴밀한 연계 하에 정책 시행
- (지역 책무성)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 통해 특구를 지원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책무성 확보

2) 주요 추진 내용

- 교육발전특구 정책에 기초하여 영유아부터 대학 범위까지 지역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고 진학 및 취업, 지속적인 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음
- (유아·돌봄 분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맞춤형 유아교육·돌봄)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를 통해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 발굴·확산
 - (지방정부 돌봄 역할 강화) 방과후, 늘봄지원센터 운영 등 지자체·교육청이 협력하여 돌봄에 대한 지역 단위의 책임과 역할 강화
- (초·중·고 분야) 지역 주도 교육개혁 지원, 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
 - (지역 공교육 강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 (학교교육 혁신)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방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의 좋은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전체의 공교육 내실화
 - (학생 성장 지원) 학업, 진학, 과학기술교육, 직업교육, 예체능교육, 최신 분야 학습 등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 성장을 종합 지원
- (고등교육 분야) 지역인재 유출 방지
 - (지역인재 입학 전형 확대)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와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
 - (지역교육 중심 역할 수행)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혁신을 통해 대학이 지역교육 및 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그림 1〉 교육발전특구 정책 방향 및 추진 내용

3.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현황 및 주요 내용

1) 시범지역 지정현황 및 주요내용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총 2회차 공모로 진행되었으며, 공모 결과 총 56건(1차 31건, 2차 25건)의 시범지역을 지정함
- 시범지역 사업 주요내용
 -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정책방향에 기초하여 돌봄, 초·중·고 공교육 역량 제고, 지역 중등-고등교육 연계 및 지역 정주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예산 관련 특례 제안할 수 있음

분야별	주요 내용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형 늘봄운영모델 개발, 학교복합시설 통한 늘봄거점센터 구축 등 늘봄학교 확대 • 유보통합 바우처, 거점형 유보통합 방과후 과정, 어린이집·유치원 공동교육과정 등 시범운영을 통해 일관되게 질 높은 영유아 지원 기반 마련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여건에 맞는 자율형 공립고 2.0 모델 제시 • 초·중·고 연계 IB 프로그램 도입·운영, IB 교원 및 예비 교원의 역량 강화 등 • 디지털 교육혁신,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 등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기반 • 학령인구감소에 대응하여 통합학교 모델, 학교간 공동·연계교육 등 제시 • 대학 연계 한국어·한국문화 프로그램 제공, 가족형 한국어 프로그램 운영, 이주·비이주 가정 간의 통합돌봄 제공 등 다문화가정 지원 방안 제시
지역 초·중·고-대학 간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고교-대학 공동교육과정개발 등 대학이 지역 공교육의 중심 역할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제시 • 생애주기별 교육 등
교육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화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모델 제시 • 지역의 특성화고교-대학-지역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대학 내 학과 신설, 대학 간 연합 아카데미 개설 등 지역의 산업 연계 인력양성 전략 제시 등 •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하여 산업 인재로 육성하고 취업 및 지역정주 연계방안 제시 등

2) 경산시 지정현황 및 주요내용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에서 경산시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됨
- 경산시는 대규모 산업단지 위치, 13개 대학 등 풍부한 지역 인프라를 바탕으로 ‘정주형 교육거버넌스 Univer-City’ 조성을 목표로 함
 - 경산형 안심돌봄 생태계 조성, 자산학 협력형 공교육 혁신, 산업전환 대응 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세부사업을 수립
 -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인구 유지, 우수한 교육·좋은 일자리 확대 등 정주 여건 개선 통한 청년의 지역정주 연계, 인재양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목표 실현을 위한 사업 수립 및 실행계획 필요

제3장 경산시 현황 및 교육환경 분석

1. 일반현황

- (지리적 여건) 경산시는 서쪽으로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도시로 포항, 경주, 울산, 부산 등 남동쪽 지역에서 대구로 진입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며, 대구광역시의 일상생활권에 속하는 대도시 근교 지역
- 경산시는 대구의 위성도시로 발전하였으며, 대구광역시와 도로교통, 하천, 문화, 복지 등 대부분의 인프라를 공유함. 도농복합도시로서 근교 농업지역, 근교 학원도시 지역, 근교 주거 및 공업지역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



〈그림 2〉 경산시 지도

- (인구현황) 경산시 인구는 2024년 3월 기준 약 266,075명(외국인 제외)²⁾으로 경상북도 시군에서 세 번째 규모이며,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COVID-19 팬데믹 기간 제외)
 - 산업단지 및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중산신도시와 신대부적지구)으로 경상북도 시군 중 유일하게 증가 추세를 보임
 - 최근 10년간 출생아 수는 2017년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현황) 제조업과 농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대학교가 많고 베드타운이 있어 요식업 등 서비스업의 비중도 높음
 - 2021년 기준 경산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8조 3천억 원으로 경상북도 지역내총생산의 약 7.8% 차지
 - 제조업의 경우 구미시나 포항시처럼 도시를 대표하는 대기업이나 산업은 없지만,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1차 협력 기업들이 소재해 있으며, 자동차·전자기기·기계류 등의 비중이 높음
 -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지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등 산업 인프라 조성 및 확대 중이며, 기

2) 자료: 경상북도

업 및 연구기관 유치 중

- 1·2·3·4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약 440개의 업체(주력업종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섬유 등)가 입주해 있음
-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를 유치하여 조성 중임. 경산지식산업지구는 대구-울산·포항의 자동차산업벨트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철도차량 부품산업, 첨단메디컬섬유 융합소재산업을 축으로 하여 기업과 연구시설이 융합된 첨단지식산업지구로 조성하고 있음
- 전통 주력 제조업의 성장 정체와 고용 및 교역 지표 하향 추세로 신성장 동력 마련 필요
 - 경산지역 전통 주요 산업은 조업률 하락, 원자재 수급 차질, 생산 감소 등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며,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기계·금속 업종은 부진이 지속될 전망으로 ICT, 모빌리티 등 신규 주력사업 유치 활성화 필요
 - 산업단지-연구기관-대학 연계하여 첨단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노력 필요

2. 교육현황

1) 경산시 학교 현황³⁾

□ 경산시 학교 현황

- 2024년도 2월 기준, 경산시의 유·초·중·고등학교 수는 116개교, 특수아 포함 29,235명의 학생이 재학 중임
- 경산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산모·신생아부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시설 운영
 - 산모·생아 대상 돌봄사업,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365 열린 시간제 보육,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위한 방과 후 보육,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서비스 등 운영
 - 또한 초등학생 이상 아동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늘봄학교, 초등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등 돌봄사업 운영
- 초등학교는 도시 내 지역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고등학교는 일반계, 과학고, 특성화고가 균형있게 배치되어 있음

□ 경산시에는 4년제 대학 7개교, 전문대학 3개교, 사이버대학 3개교가 소재해 있음. 경북도 내 대학 수의 절반, 학생 수로는 70%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대학도시라 할 수 있음

- 경산 소재 각 대학은 특성화 분야가 있으며, 경산시 주요 산업과 연계하여 인력양성 및 주요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예) 영남대학교-로봇자동차부품, SW, 반도체 등, 대구대학교-정보통신, 전자전기 등, 대구가

3) 자료: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시교육지원청

톨릭대-바이오메디융합 SW 등, 대구한의대-한방산업, 웰니스 등



〈그림 3〉 경산 소재 대학의 특성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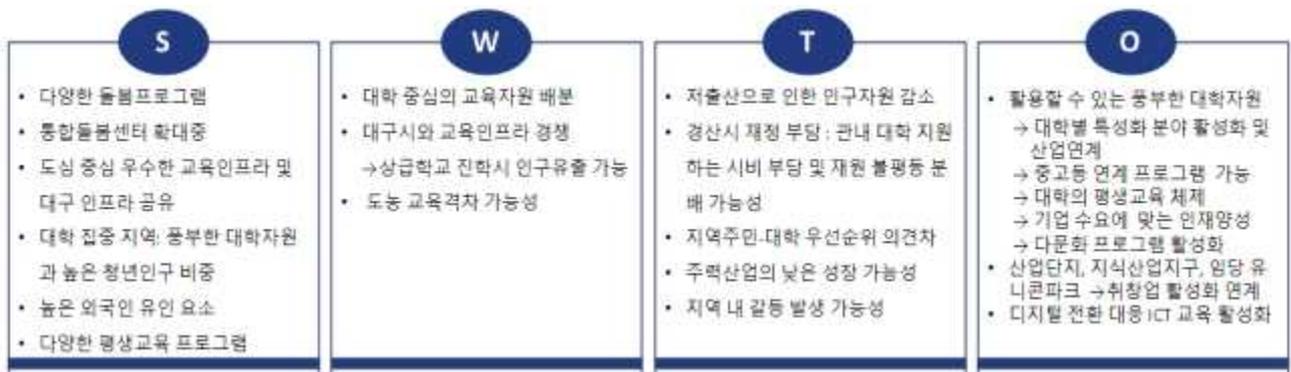
- 또한 경산 관내에는 특수교육 전공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이 3개소가 있음. 특히 대구대학교는 우리나라 최초로 특수교육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특수교육에 전문성이 강함
- 그 외, 경산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서비스를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음
 - 경산시는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열린 평생학습, 전문자격증 양성과정, 경산 아카데미, 디지털 시대 연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평생교육 수요를 충족

2) 경산시 교육환경 분석

- 경산시는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일반 어린이집 외 시간제 보육과 365 열린기간제 보육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경산시에는 2024년 기준 31개의 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도심 지역과 농촌 지역에 고르게 분포
 - 경산 도심 지역의 경우, 우수한 학군과 교육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대구의 교육시설도 활용 가능. 그러나 도심 내 학교에 학생이 몰려 있어 프로그램이나 교육시설 지원 등에 있어 도농 지역 학교 간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경산시는 대구의 교육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경쟁으로 인한 학생 유출 및 지역 교육 자원 활용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경산 도심 중심으로 교육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고, 인접해 있는 대구의 교육 및 문화시설을 이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대구시 대비 약한 경쟁력으로 경산시의 교육인프라 활용률이 낮아질 수 있으며, 학업 지원 및 대학 진학을 위해 초중고에서 상급학교 진학 시 대구로 학생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 유출 학생을 줄이고 경산시로 학생들이 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대학 진학 관련 정보네트워크 구축,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교육인프라 경쟁력 강화 필요
- 경산시는 다수의 대학이 밀집한 대학도시로 학문적 자원이 풍부하며, 연구 및 학술 활동, 대학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가능
- 대학자원을 연계하여 산학연계, 대학-초중등 교육 프로그램, 일반인 대상 직무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한 다문화 교육도 대학 자원 활용 가능



〈그림 4〉 경산시 교육환경 분석 결과

제4장 경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

-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경산시 특성을 반영한 교육사업 운영 필요
 - 교육발전특구사업은 기존 사업과는 달리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공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사업으로, 경산시-경산시교육지원청의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 초중고,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함께 경산시의 특성을 담은 교육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경산시의 일반현황과 교육환경 분석 결과, 경산시의 특징점을 반영하여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체제를 만들기 위한 교육발전특구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
- 경산형 통합돌봄 생태계 구축
 - K보듬-6000의 1호 센터가 경산에서 개소하는 등 기존의 유아동 돌봄시설 개선 및 강화, 긴급돌

봄, 24시간 돌봄 지원 등 경산형 돌봄 시스템 구축

- 경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뿐만 아니라 경산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이 졸업 후 지역기업 취업-결혼-출산-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돌봄사업 중에서 출산 및 육아돌봄 서비스 정책 지원 필요

○ 지역별 특성에 따른 통합돌봄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공공돌봄 실현

- 기존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학교 중심으로 학교복합시설 연계한 늘봄학교 활성화,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내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등 경산 내에서도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따른 통합돌봄센터 운영

□ 디지털 전환 대응 ICT 교육 등 스마트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교육 역량 강화

○ ICT 기술 활용한 스마트 교실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디지털 학습환경 제공

○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개발하여 관련 분야 인재 양성

- 경산시 SW·AI 특성화 대학과 협력하여 SW·AI 시설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초·중·고 학생에게 차별화된 SW·AI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 인재 육성 연계 가능

□ 특수교육 전문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관련 분야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산시 특화 교육 모델로 육성

○ 경산시에는 특수교육 관련 전공 대학이 3개소가 있는 만큼 특수교육 분야 경쟁력이 있음

○ 대학과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 특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특수교육 대상자 네트워크 구축, 특수교육 교원 역량강화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특수교육 분야를 총괄하는 시스템 구축하여 관련 분야에 특화된 지역으로 발전

- 예) 경계성 지능인 상담 및 교육시스템은 서울 다음으로 대구라는 인식이 있을 만큼 특수교육 분야 전문성이 있음. 서울 및 대구로 유입되는 관련 서비스 수요를 경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특수 교육 플랫폼 구축

□ 집중되어 있는 대학 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교육-문화-경제 활성화 도모: 대학별 특성화 분야 활성화 및 산학연계 전문 인력 양성

○ 대학과 공공기관 연계 SW 분야 전문인력 양성

-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등은 SW 중점대학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SW 전공 관련 역량 갖추고 있음. SW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경산시 중·고등학생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제공하여 취·창업 연계, 리스킬·업스킬 지원, SW 융합인재 양성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경산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지역산업 네트워크 구축, SW 전문인력 양성 가능

○ 영남대 반도체 시설 활용한 반도체 교육 및 인재양성

- 영남대는 반도체 소자공정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메타버스 연계한 반도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역량도 갖추고 있어 이론과 실습교육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음.

- 반도체 분야에 관심 있는 전공자, 재직자 및 고등학생에게 수준별 교육을 제공하여 관련 분야 진학·취업 연계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대학과 연계한 다문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경산시 거주 유학생 및 외국인들에게 한국 적응 및 정주 지원

- 경산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연구인력 및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체험, 학생 및 지역주민과 연계, 취창업 프로그램 등 다문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또한 지역민에게 다문화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다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통해 유학생 등 우수 해외 인력의 한국 적응 및 정착 유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갈등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창업거점도시 경산: 창업공간 조성과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으로 창업·스타트업 중심 도시로 성장

- 경산시는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스타트업파크에 선정되었으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조성 중에 있음
- 경산시는 지역 주력산업인 자율주행·ICT·모빌리티 등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스타트업 기술개발 및 창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은 이러한 창업거점센터와 연계하여 청년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개념으로 일반시민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 교육자원 배분 및 예산 우선순위 등 기준 정립 및 지역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협력 증진, 투명한 사업 운영 필요

참고문헌

교육부(2023).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교육부(2023).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교육부(2023).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교육정책네트워크(2024). 교육정책포럼, 370.
경상북도 홈페이지(2024)
경산시청 홈페이지(2024)
경산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2024)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홈페이지(2024)